올바른 정보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월간 낙농육우」가 되어주기를…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먼저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 기념 축사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낙농육우』는 지난 25년 동안 한우 · 젖소 및 우유관련 업종의 종합전문 월간지로서 축산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축산인의 벗"이었으며, 축산현장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농정에 반영되도록 전달해 줌과 동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농정의 동반자' 요, '대안적 비판자' 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해외여행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WTO 및 DD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및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적 · 물적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00년 및 '02년 구제역 발생 이후 초동방역에 성공하여 '02년 11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만('97) 및 영국('01)의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피해로 조기근절이 안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을 반추해 볼 때 우리나라 축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관련 분야의 주체들이 다시 한번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입니다. 예컨대 농가를 출입할 때마다 농장 근로자들은 신발 · 손 등을 세척 · 소독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축사에 출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처음 채용시에는 의복 · 신발 · 개인용구 등에 대하여 세척 · 소독을 일상화 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고, 농장의 출입시 반드시 세척과 소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의 한개 한개의 농장에서 출입자를 비롯 출입차량 통제와 소독실시 등 차단 방역을 착실히 수행할 때 국가 전체가 청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기르는 가축

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각오아래 "축산농가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율적인 신념과 각오로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는 물론 농장입구와 축사 내외부에 대한 세척 및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저희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현재까지 지켜온 구제역과 광우병 청정국 유지 및 부루세라 등 만성소모성 질병의 발생최소화의 생산적인 방역대책 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월간 낙농육우』의 지면을 통해 축산농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최근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문제는 축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주요사건만을 보아도 '97년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병원성 대장균 O157:H7 사건, '99년 미국산 수입소시지 리스테리아 오염사건, '99년 벨기에산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사건 및 '01년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 카나다 · 미국의 광우병 파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안전성과 위생이 확보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양축농가, 가공 · 유통업체가 생산 · 가공 · 유통 단계의 전 분야에서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 · 유지시킬 수 있도록 『월간 낙농육우』가 적극 홍보하여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사육단계인 양축농장내 가축과 사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시작으로 도축 · 집유, 가공, 보관, 운반, 판매의 6단계에 이르기까지 축산식품의 특성에 맞는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농장에서 식탁까지)과 수입축산물 및 국내축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월간 낙농육우』가 지난 25년 동안 구제역 발생과 광우병 파동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정보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줌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어 우리나라 축산업이 개방화 · 정보화 · 국제화의 현실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한몫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